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 구약신학, 7차시, 회복자로서의 하나님

© 2024 Tiberius Rata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구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7, 회복자로서의 신입니다.

오늘은 회복자로서의 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신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고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유배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이 유배의 이유에 대해 아주 많이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선지자들을 읽을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죄, 심판, 회복.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중 하나가 유배였습니다. 그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유배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북쪽 왕국은 아시리아 유배로, 남쪽 유다 왕국은 바빌로니아 유배로. 하지만 선지서를 읽을 때는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언어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약속하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를 읽는 것을 멈춥니다. 때로는 너무 지루하고 반복적이기 때문입니다.

죄, 심판, 죄, 심판. 하지만 회복의 언어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 회복에 대한 간단한 영어 정의는 이전의 위치나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 회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유배 생활을 한 후에 그들의 운명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북왕국과 남왕국이 모두 유배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돌아왔을 때, 우리는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돌아왔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선지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 그러니 점진적으로, 연대순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다시 말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요엘의 날짜에 대해 논쟁합니다. 일부는 9 세기로, 일부는 그 이후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착륙하든, 요엘은 약속했고,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 유배에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보라, 그 날들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운명을 회복할 때, 나는 모든 민족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데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백성과 내 유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들을 심판에 회부할 것입니다. 그들은 민족들 사이에 흩어졌고 내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8세기로 빨리 넘어가서, 아모스를 통해,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포로를 회복시킬 것이고, 그들은 파괴된 도시들을 재건하고 그 안에서 살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정원을 만들고, 그 과일을 먹을 것입니다.

그 생각은 회복이 완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유다의 동시대 사람인 내가 내 백성의 운명을 회복할 때 너희에게 추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8세기의 예언자이기도 한 이사야는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회복하는 나의 종이 되는 것은 사소한 일입니다

나는 또한 너를 민족들에게 빛이 되게 하여 내 구원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매 세기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요, 또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예레미야는 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가 쫓아낸 모든 나라에서 데려왔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7세기와 6세기를 모두 아우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제로 587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지만 회복에 대한 언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27장 22절,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내가 그들을 찾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을 데려와서 그곳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유배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유배가 70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의 포로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과 내가 쫓아낸 모든 곳에서 모아서, 내가 너희를 보낸 곳으로 다시 데려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예레미야 29장과 30~33장 이후에 우리는 위로의 책이라는 전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회복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32장에서 사람들은 돈으로 밭을 사고 증서에 서명하고 봉인하고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주변과 유다의 성읍들과 산간 지방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게브의 성읍들에서 증인을 불러야 합니다. 이는 내가 그들의 운명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위로의 책 또는 위로의 책의 일부입니다. 예레미야가 죄와 심판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지만 회복의 언어도 있습니다.

6세기의 예언자 에스겔에게 빨리 넘어가서,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제 나는 야곱의 운명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온 집에 자비를 베풀며, 나의 선을 위해,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열심을 낼 것이다. 그러므로 유배 전 예언자들이 있고, 유배 중 예언자들이 있고, 유배 후 예언자들이 있다. 하지만 유배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우리는 실제 회복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설명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잠깐 동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피난민을 남겨 두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남은 자 신학의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망명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돌아올 충실한 남은 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의 신학은 선지자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도망친 남은 자들이여, 그의 거룩한 곳에 못을 박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고 우리의 속박 가운데서 약간의 소생을 허락하시도록 하소서. 우리는 종들이나 우리의 속박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들의 눈앞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 우리에게 소생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일으키시고, 그 폐허를 회복하시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성벽을 주시려고 하셨나이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회복에 대한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의 유배가 있었던 것처럼, 유배에서 돌아온 것도 세 번 있습니다. 세 번의 유배가 있습니다: 기원전 605년, 기원전 597년, 기원전 587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다른 지도자들 아래에서 세 번의 유배에서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1-6장에 묘사된 첫 번째는 세쉬 바자르, 스룹바벨, 예슈아의 지도 아래 약 50,000명의 유대인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 7-10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약 2,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의 지도 아래 돌아옵니다. 그런 다음 세 번째는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돌아오고 있으며 알려지지 않은 숫자가 돌아옵니다.

세 사람 모두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다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모두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위대한 지도자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제, 에스라는 영적인 지도자에 가깝습니다. 그는 율법의 교사입니다.

반면 느헤미야는 때때로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주지사이지만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는 한 손에는 말씀을,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싸우기도 합니다. 이는 지도자가 때때로 계획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에 그의 기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때때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만, 때로는 무릎을 꿇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했듯이 경건함은 준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준비도 경건함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위대한 지도자임이 입증되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모두 이 회복 과정에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는 성벽 재건이 있는데, 때때로 성벽이 중단되고, 산발랏, 도비아, 아랍인 게르숨 때문에 건설이 중단됩니다.

당신은 많은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반대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배웁니다. 반대가 반드시 당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때때로 반대는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이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반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느헤미야에 대해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은 그를 향해 악을 말합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끈기 있게 버텨냅니다.

6장에서 우리는 성벽이 52일 만에 엘룰 산의 25일에 완성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기록적인 기적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 주변의 모든 민족들은 두려워했고, 스스로를 크게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일이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압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에는 귀환민 명단이 있고, 그들은 마침내 초막절을 기념합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고 성전 벽을 봉헌합니다. 이제 그들은 유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마음의 선함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약속을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는 분이십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 우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스라엘 회복의 모티브를 봅니다. 문제는 회복이 완전히 성취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을 읽으실 때, 그들이 나사렛 회당에 계시는 예수님께 두루마리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음이니라.

그는 나를 보내어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완성되었는가? 이사야 61장, 우리는 원문을 가지고 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주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상한 마음을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의 풀림을 선포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수의 날을 선포하고, 애통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시온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머리장식을 주고, 애통 대신 기쁨의 기름을 주고, 낙심한 마음 대신 찬양의 옷을 주어 그들이 의의 참나무, 곧 주님의 심으신 것으로 불리게 하여 영광을 얻으리라. 그들은 옛적의 폐허를 쌓고, 이전의 황폐함을 일으키고, 황폐한 성읍과 여러 세대의 황폐함을 수리할 것이다. 외국인들이 서서 너희 양 떼를 치고, 외국인들이 너희 쟁기질과 포도원 가꾸는 자가 되겠지만, 너희는 주님의 제사장이라 불릴 것이다.

그들은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부를 것이요, 너희는 열국의 부를 먹고 그들의 영광 가운데서 자랑하리라. 수치 대신에 두 배의 몫이 있을 것이요, 불명예 대신에 그들은 그들의 몫을 기뻐할 것이니, 그러므로 그들의 땅에서 그들은 두 배의 몫을 소유하고 영원한 기쁨을 가질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정의를 사랑하고, 강도질과 불의를 미워하며, 나는 충실하게 그들의 보상에 갚을 것이며,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자손은 민족들 가운데 알려질 것이요, 그들의 후손은 민족들 가운데 알려질 것이요, 그들을 보는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주께서 축복하신 자손이 있음을 인정할 것이다. 나는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그가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겹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다. 신랑이 아름다운 머리장식을 한 제사장처럼 자신을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하는

것 같다. 땅이 싹을 틔우고, 정원이 그것을 심은 것을 돌아나게 하듯 이, 주 하나님은 모든 민족 앞에서 의와 찬양을 돌아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질문은, 이 모든 것이 이미 성취되었는가, 아니면 회복의 일부가 미래에 아직 이루어져야 하는가입니다. 사도행전 3장 9절, 19-21절에서 우리는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가 지워지고 상쾌해지는 때가 주 앞에서 이르러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늘이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그를 받아들여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옛날에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 오 , 그렇다면 회복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어떤 형태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동안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자 NT 라이트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유배 상태에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유배는 끝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서 11장 26절에서 마지막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쓴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 무렵에 유대인들이 대량으로 개종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알고 있듯이 그들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쓴 것처럼 마음의 a에 있습니다. 이것은 NT Wright가 그녀가 바빌론에서 돌아왔지만 선지자들의 영광스러운 메시지는 성취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고 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외국인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스라엘의 신이 시온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매우,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제 Yeshua Ben Sira 100 BC는 헬레니즘 유대인 서기관이자 현자였습니다.

그는 시락서라고도 알려진 에클레시아스티쿠스의 저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적어도 해외로 망명하여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억압

상태에 남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NT 라이트도 취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또한 사해 두루마리와 기원전 2세기의 2번째 바룩서에서 유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잠시 후, 시온은 다시 재건될 것이고, 제물은 회복될 것이고, 제사장들은 다시 그들의 사역으로 돌아올 것이고, 나라들은 다시 와서 그것을 존중할 것이지만, 예전만큼 충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임명하실 때, 질문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건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끝이 열려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2제자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지자들의 언어가 연속되는 듯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님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 세상에서 인자가 그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는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심판의 언어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회복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상화된 유배 이전 시대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약속은 이루어졌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땅을 완전히 되찾지 못했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을 때 일어났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 에스카톤에서만 성취될 어떤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에서 스가랴의 예언을 암시하셨습니다. 스가랴 2장 , 다시 말해서 유배 이후의 예언자, 6절부터 환상이 나옵니다. 북방 땅에서 도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하늘의 네 바람처럼 너희를 널리 퍼뜨렸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딸과 함께 사는 너희여, 시온으로 도망하라.

글쎄요, 이것은 첫 번째 바빌로니아 유배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후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영광 후에 나를 너희를 약탈한 민족들에게 보내시리라. 그의 눈동자를 만지는 자는 보라 내가 그들 위에 내 손을 흔들어 그들이 섬기는 자들에게 약탈당하리라. 그러면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알 것이다. 노래하고 기뻐하라. 오 시온의 딸아. 보라 내가 와서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많은 민족이 여호와께 연합하여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 것이다. 주님은 유다와 거룩한 땅에서 그의 몫을 상속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실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종말론적 언어이며,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바로 이 구절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후의 그 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진동할 것이며 그들은 인자가 구름 속에서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자기의 택함받은 자들을 모을 것입니다. 이는 스가랴가 다시 사용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메시지와 사역을 이스라엘의 유배의 끝의 시작으로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즉각적인 역사적 성취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셨을 때 그리스도의 성취가 있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궁극적인 성취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티베리우스 라타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7, 회복자로서의 신입니다.